

시리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시리아

I. 일반개황

면적	185천 km ²	G D P	392억 달러(2007년)
인구	19.9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1,975 달러(2007년)
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국	통화단위	Syrian Pound
대외정책	아랍주의	환율(달러당)	50.00(2007년)

- 시리아는 이스라엘, 이라크, 요르단, 터키등과 접경한 지중해 동부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국토면적과 인구 19.9백만 명을 보유한 사회주의 공화국임.
- 농업이 경제의 주축이며, 해외근로자 송금과 석유수출 등이 주요 외화 획득원이나 최근 산유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0년에 집권한 바사르 대통령은 2004년 본격화된 미국의 경제제재와 국제사회로 부터의 고립을 탈피코자 2005년, 레바논 주둔군을 철수시키고 관계 정상화와 경제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룹, 레바논 헤즈볼라 및 이란 정부와의 은밀한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f
경제성장률	4.9	4.6	5.1	4.2	4.1
재정수지 / GDP	-	-6.1	-5.9	-6.9	-5.5
소비자물가상승률	4.6	7.2	10.0	7.4	8.7

자료 : IFS, EIU

□ 고유가와 서비스 부문 호조, 견조한 경제 성장 견인

- 고유가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의 호조, 이라크 정정불안으로 유입된 피난 인구의 상품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4%를 상회하는 견조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원유 생산량이 향후 경제성장을 저해할 요소로 남아있으나, EU 및 인근 중동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개선조짐을 보이고 해당 국가들로 부터의 투자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호조세 지속에 힘입어 2009년까지 연평균 4.5%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적자

- 시리아는 광범위한 연료 보조금 지급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 5.9% 보다 증가하여 6.9%를 기록함.
- 2008년에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부문 및 BOT 계약에 의거 정부에게 소유권이 인계되는 기간 통신사업으로 부터의 재정 수입증대와 연료

보조금 축소,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세제 개혁 등이 효과를 거두면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5.5%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시리아 정부는 세원 확보 및 이를 통한 재정 개선을 위한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오는 2009년부터 제한된 범위의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할 예정임.

□ 소비자 물가 상승세 지속

- 식료품 가격 급등 등으로 2006년 10%에 달하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 정부의 환율제도 개편에 따른 시리아 파운드화 평가절상과 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다소 안정세로 전환하여 7.4%를 기록함.
- 그러나, 2008년에는 수입 식료품 가격 상승세 지속과 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에 따라 9%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제조업 기반 취약, 농업 및 석유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 시리아는 2000년 이전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통해 제조업을 국가가 직접 운영하여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2000년 이후 점진적인 개혁 정책으로 민간부분의 제조업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임.
- 밀, 사탕무, 올리브 등을 중심으로 한 농업 부문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관개시설 미비로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강우량 등 기후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최근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 호조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으나, 향후 지역 정세와 국제관계 개선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산유량 감소로 산업 다각화 시급

- 시리아의 주요 외화획득원인 원유 일산량은 1995년 600,000b/d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산업다각화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 일산량 변동 추이 : 2006년 417,500 b/d → 2007년 380,000 b/d → 2008년f 347,000 b/d

□ 관광산업 발전 잠재력, 국제관계로 제약

- 시리아는 로마 및 비잔틴 문명 유적과 고대 도시, 이슬람 성지, 지중해 해안 등 풍부한 관광산업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의 대외관계 개선 조짐에 따라 2003년 4.4백만 명이던 관광객 수가 2006년 6백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동국 관광산업 발전은 지정학적 위협과 국제관계 변동에 큰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상황임.

□ 점진적 개혁 추진 중, 실효는 미지수

- 2005년 이후 민간 경제 육성,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EU 및 주변 아랍국가로 부터의 투자유치 등을 위한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이나, 개혁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고착화된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뿌리 깊은 잔재로 인해 개혁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는 미지수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f
경 상 수 지	586	295	890	835	1,015
경 상 수 지 / G D P	2.3	1.1	2.7	2.1	2.2
상 품 수 지	263	-140	886	282	377
수 출	7,220	8,602	10,245	10,782	11,402
수 입	6,957	8,742	9,359	10,500	11,025
외 환 보 유 액	4,963	5,363	5,713	6,039	6,338
총 외 채 잔 액	18,981	6,571	6,601	6,482	6,353
총 외 채 잔 액 / G D P	73	23.5	20.1	16.5	13.7
D . S . R .	4.6	1.5	3.0	3.0	-

자료 : IFS, EIU

□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 시리아 수출의 2/3을 담당하는 석유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부문 성장과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 비 석유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2006년 GDP 대비 2.7%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07년에도 흑자 기조를 지속함.
- 2008년에도 GDP 대비 2.2%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을 전후하여 경상수지는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사회 안정

□ 바샤르 대통령 중심의 일당독재 체제 유지

- 현 바샤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30년에 걸친 장기 집권후 사망한 부친 하페즈 대통령의 뒤를 이어 36세의 나이로 집권한 이후, 강력한 친위 비밀경찰의 감시와 통제, 시리아 헌법이 정치, 사회를 지도하는 유일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트당의 지원 기반 아래 강력한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바트당의 일당 독재체제에 대적할 만한 국내의 야당 또는 저항 세력이 없는 상황으로 향후 국내로 부터의 정국 불안 요인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나, 이란, 팔레스타인, 레바논 등의 이슬람 강경세력과 동조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는 UN과 서방국가로 부터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등 대외적인 정정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시리아 정부는 서민 대중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해 광범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필품 가격 통제 등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유인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2. 국제관계

□ 미국, 경제제재 시행

- 미국은 시리아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시아파 그룹 헤즈볼라, 이란 정부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들의 지하 활동을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Syria Accountability and Lebanese Sovereignty Restoration Act'를 제정하고 동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여 경제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 UN, 2005년 레바논 총리 암살사건의 시리아 관련 여부 조사 진행 중

- UN은 2005년 2월 발생한 레바논 하리리 총리 암살사건에 시리아 정부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안보리 결의를 통해 레바논에 주둔중인 시리아 군대와 정보기관을 철수하고 시리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 민병대를 해산할 것을 요구함.
- 현재까지 동 사건에 대한 UN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시리아는 UN 차원의 제재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시리아 정부, 국제관계 회복 노력 진행

- 시리아는 UN안보리 결의안 요구에 의거, 과거 29년간 주둔하고 있던 자국 군대를 2005년 4월 완전 철수함. 이어 최근에는 대외 유화정책과 경제개혁 노력으로 EU 및 주변 아랍국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
- * 2007. 11월, 프랑스 정부는 대규모 고위 외교 사절단 파견을 통해 시리아와의 외교채널을 복원하고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이른바 '지중해 동맹'에 시리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아울러 그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 등 인근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아울러, 지난 11월,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평화협상에 전격 참여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 또한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임.
- 그러나 최근까지 레바논에서 반시리아 기독교계 정치 지도자에 대한 폭탄 테러와 암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이들 테러사건에 시리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슬람 과격세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관계 회복 노력이 성과를 보일지는 미지수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외채 리스케줄링 국가

- 구소련 붕괴 이전 주로 동구권 국가들로 부터 도입한 외채에 대한 상환 등을 거부해 오다 1997년 세계은행과의 채무재조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채무 재조정에 들어가 2005년 최대 채권국인 러시아와의 채무재조정 협상을 통해 약 100억불을 탕감받고 나머지 36억불은 리스케줄링에 합의함.
- OECD는 시리아를 리스케줄링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2. 국제시장 평가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 : 범에의한 지원금지
- ECGD : 중, 단기 인수가능
-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한조건이 있을수 있음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 OECD : 7등급 (2007. 6) --> 7등급 (2007. 10)
- ICRG : 95/140 (2006. 11) --> 109/140(2007. 10)
- I.I. : 111/174(2007. 3) --> 107/174 (2007. 9)
- Euromoney : 123/185 (2006. 9) --> 122/185(2007. 9)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미수교국

□ 2007년 교역규모(10월말 기준) : 수출 514,143천불, 수입 5,707천불

- 주요 수출품 :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화학제품
- 주요 수입품 : 유류, 가죽제품, 농산물

V. 종합 의견

- 시리아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부문 호조세와 주요 수출품목인 유가 상승에 힘입어 최근 3년간 4% 후반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 전반에 걸쳐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05년 러시아와의 채무재조정 협상에 따른 대규모 외채탕감으로 외채상환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으나, 농업부문 및 연료비, 생필품 등에 대한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오랜 기간에 걸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행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농업중심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유한 가운데,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유수출 또한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한 상황임.
- 현 바사르 정권은 강력한 비밀경찰과 유일 바트당의지지 하에 견고한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레바논 총리 암살사건 연루 의혹, 팔레스타인 하마스 및 레바논 헤즈볼라 등 이슬람 강경세력 지원 및 이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 등으로 인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고립 문제가 중요한 해결과제임.